



기득권층을 신랄하게 풍자한 호가스
박재현 작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반발을 두려워해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시대는 발전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조리를 거침없이 풍자했던 화가가 호가스다. 그가 사회를 풍자한 것은 기득권층이나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호가스는 일찍이 그림에 재능을 보였지만 가난한 인쇄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호가스는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인쇄소에서 삽화가로 활동하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30대까지 인쇄소 판화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호가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당대에 유명한 벽화가이자 화가였던 손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호가스는 보잘 것 없는 삽화가에서 화가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호가스는 런던의 귀족들을 상대로 당시 인기가 많았던 작은 초상화 형태의 가족 초상화를 그려 상류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

호가스는 왕실 중심의 고전적인 초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영국 미술계에 희망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을 주제로 연작을 발표한다. 그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적이면서도 연극으로 공연하는 느낌이 나도록 구성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호가스가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일어났다. 호가스는 왕실 중심의 초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18세기 영국 미술계에 새로운 주제를 들고 혜성 같이 등장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호가스가 첫 번째로 제작한 교훈적인 풍자화가 〈매춘부의 일대기〉이다. 총 여섯 점으로 제작된 시리즈로 호가스는 당대의 삶을 시사적으로 담아냈다.

런던에 상경한 아름다운 시골처녀 메리는 당대 유명한 포주 니덤의 꾀에 빠져 고급매춘부가 된다. 고급매춘부로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부유한 고리대금업자의 정부가 되어 상류층 생활을 즐긴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리대금업자에게 싫증을 느껴 젊은 애인과 도망친다.

메리는 젊은 애인과 상류층을 흉내 내며 흥청망청 돈을 쓰다 결국 애인에게 버림받고 싸구려 매춘부로 전락한다. 그녀는 비참한 생활 중에 만난 노상강도와 사랑에 빠지지만 매춘부를 잡아들이는 경비대에 끌려가 수용소 감화원에서 대마를 두들겨 쪼는 형을 받는다.

메리는 지저분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있던 중 병에 걸린다. 그녀를 치료하러 온 당대 유명한 의사 로크와 미소빈은 각자의 치료법에 대하여 싸우기 바빠 그녀를 치료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메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731년 9월2일 23살이라고 적혀 있는 관위에 명패는 젊은 나이에

죽는 메리의 안타까운 일생을 나타내지만 장례식장에서 모인 사람들 중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매춘부의 일대기〉 중 두 번째 작품은 메리의 험난한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남자가 고리대금업자이며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뒤집는 여자가 메리다. 흑인 시종이 그녀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으며 하녀는 문을 열어 젊은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려한 방의 장식과 흑인 시종은 메리가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녀가 테이블을 뒤집는 것은 고리대금업자 몰래 젊은 애인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다.

바닥의 깨진 찻잔은 그녀의 고급스러운 생활이 깨진다는 것을 암시하며 화장대 위의 가면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메리의 정신 상태는 의미한다.

〈매춘부의 일대기〉 시리즈는 모든 계층에 호소력을 발휘하면서 인기를 끌어 곧 거리에 복제화로 만들어졌다. 이에 호가스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호가스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1733년경 첫 번째 저서 〈디자이너, 판화가의 사례-의회에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판한다. 호가스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글은 결국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일명 ‘호가스 법안’ 이라고 불린다.

호가스에게 명성을 안겨준 풍자 작품이 〈유행에 따른 결혼〉다. 이 작품은 당시 상류 사회의 치부 중에 하나인 정략결혼을 풍자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기품 있고 우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없는 귀족들은 신분상승을 꿈꾸었던 신흥 부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영국 상류 사회에 퍼져있던 정략결혼으로 인해 불행한 결혼생활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결혼을 통해 돈으로 신분을 산 중산층의 여성과 몰락한 가문의 남자 그들의 결혼 생활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유행에 따른 결혼〉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계약〉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비판하고 부부간의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모델은 스완너더필드 백작의 아들과 상인의 딸이다. 실제로 상인의 딸의 정부였던 변호사 실버팅은 질투에 눈이 멀어 매춘부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스완너더필드 백작의 아들을 죽이고 그 사건으로 젊은 미망인은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한다.

이 작품에서 황금색 옷을 입은 백작은 발판에 통풍에 걸린 발을 올려놓고 자신이 집안을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 나무 그림의 가게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통풍에 걸린 백작의 발은 돈에 대한 탐욕을 암시한다.

원형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안경 낀 붉은 옷의 남자는 도시의 상인으로서 결혼지참금 계약서를 읽고 있다. 탁자 사이에 있는 남자가 백작의 서기다. 그는 상인에게 받은 지참금을 백작에게 넘겨주고 있다. 신부의 지참금은 창밖으로 보이는 집다만 신축 건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식 건물은 물론 패션도 프랑스 스타일이 유행이었다. 허영에 들뜬 귀족들은 유행을 위해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

상인 뒤에 앉아 있는 신부는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변호사는 나중에 신부의 애인이 되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를 호가스는 암시하고 있다.

신부의 옆에 있는 당시 유행하던 프랑스식 옷차림을 하고 있는 백작의 아들은 이 결혼식에 아무 관심이 없고 거울을 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아들 발밑에 있는 두 마리의 개는 결혼의 상징이다. 결혼식에 관심이 없는 신랑 신부들처럼 개들도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행에 따른 결혼〉시리즈는 계약 결혼을 시작으로 빠르게 결혼 생활이 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행에 따른 결혼〉이 시리즈를 판화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호가스는 판화를 팔기 위해 신문에 직접광고를 실어 예약을 받고 팔았다. 그의 판매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영국에서는 더 많은 중산층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매체들을 선호했다.

호가스는 교훈적인 내용의 판화 시리즈로 영국 내에 유명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판화 작품들은 유럽 전역에서 인기가 많아 절찬리에 팔려 나갔다. 또한 호가스의 판화작품은 화가가 부유층에게 후원을 받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윌리엄 호가스(1697~1764)는 자유주의와 박애주의를 옹호하는 흐름에 편승해 인간의 불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년에도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형식에 사로잡힌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해 항상 논쟁의 중심에서 있었다.

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호가스의 방식은 영국 풍자 소설가 필딩을 비롯해 찰스 디킨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호가스는 영국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화가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



〈매춘부의 일대기-두 번째〉-1731년, 판화, 30*37



〈유행에 따른 결혼-결혼 계약〉-1743년, 캔버스에 유채, 70*91,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알리는 말씀 - 지방재정과 지방세 개편 관련

지방재정과 지방세지가 창간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지방세지를, 1992년부터 지방재정지를 발간하다 2008년부터 지방재정과 지방세지로 합본하여 월간지로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과 지방세에 대한 정책흐름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적 이론제시, 외국 사례소개, 지방재정 및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등을 통해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분야에 더욱 특화하여 전문교양지로서 거듭날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보내주신 변치 않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 임진년(壬辰年)에 더욱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27
Fax : 02)3274-2009
E-mail : myposse@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12월호
(통권 제 48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정재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최재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변성완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안병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심영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조규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12월 일

디자인 · 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